

# 전역예정 직업군인의 내적·외적요인이 창업의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업지원프로그램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용식<sup>1</sup>, 하규수<sup>1\*</sup>  
<sup>1</sup>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벤처경영학과

## A Study on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Affecting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Korean Professional Soldiers Waiting for Retirement.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ial Support Programs

Kim, Yong Shik<sup>1</sup> and Ha, Kyu Soo<sup>1\*</sup>

<sup>1</sup>Department of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창업의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전역예정 직업군인의 내적·외적 특성요인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창업가의 특성요인과 창업의욕간의 인과관계를 창업지원프로그램의 매개변수를 고려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0년 이상 장기복무 후 전역을 5개월에서 1년을 앞두고 있는 직업 군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총 361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적 특성요인은 창업의욕에 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적 특성요인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창업지원프로그램이 사회적 인식과 창업의욕 사이에서 매개 변수로서 역할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시사점과 차후 연구 과제를 논의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affecting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Korean professional soldiers who are supposed to retire less than one year. Another main focus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hether there is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ial support programs for entrepreneurial intentions. In this research, data were collected from 361 officers and non-commission officers who are scheduled to retire from the military within 5 months to one year after at least 10 years of military servic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SPSS using the regression analysis method.

In this study, we found that internal factors did not positively affect entrepreneurial intentions, however, external factors positively affected entrepreneurial intentions. It was also found that entrepreneurial support programs played important role as moderating variables between social perceptions toward entrepreneurs and their entrepreneurial intentions. Based on these findings, implications of research implications are discussed,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provided.

**Key Words** : Internal-External factors, Entrepreneurial support program, Entrepreneurial intentions

### 1. 서론

급, 연령 등의 정년 제한으로 인하여 생애 최대 지출이 많은 시기라 할 수 있는 40대에서 50대에 걸쳐 대부분 본 직업군인은 군 인사관리상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개인의 희망과 무관하게 조기에 전역하게 된다. 최근 이윤

\*교신저자 : 하규수(ksh@hoseo.edu)

접수일 11년 02월 07일 수정일(1차 11년 04월 07일, 2차 11년 04월 18일, 3차 11년 04월 21일) 게재확정일 11년 05월 12일

성 국회의원의 국방위 국정감사 2009년도 정책 자료집에 의하면 장기복무 전역 직업군인의 재취업률은 전역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06년 17%, '07년 21.3% '08년 24.8%로 나타나 고용안정성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4]. 장기 복무 전역군인들이 평소 수행했던 업무는 군사작전이나 군사기술과 관련된 업무위주로 구성되어있어 전역 후 활용범위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노동시장 재진입의 여건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장기복무 전역군인의 사회진출시기가 베이비 붐 세대(1955~1963년도 출생) 직장인들의 은퇴시기와 겹치게 되었다. 베이비 붐 원년세대인 1955년생을 필두로 2010년부터 청년 및 조기퇴직을 하여 노동시장에 대거 재 진입함에 따라 전역군인의 재취업에 최대의 경쟁 그룹이 등장하게 되었다. 노동시장의 일정한 크기의 파이를 전역군인과 민간인이 나눠 먹기 경쟁을 한다면 이것은 전형적인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으로써 양자 간에 갈등을 유발하게 되므로 기존 일자리에 끼어들기보다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전역군인의 창업에 대한 지원을 그 대안으로서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국방부 산하 국방취업센터에서는 매년 취업지원 업무자료집을 발간하여 취업실적을 발표하고 있으나 창업에 대한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1]. 이는 국방부의 전역군인에 대한 창업지원 정책이 소극적이라는 의미이다. 물론 창업은 실패할 위험요소가 많이 있다. 전역군인들이 사회 환경이나 창업문화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창업을 서두른다면 실패할 확률은 높을 것이다. 전역군인들이 직면하게 될 창업현장에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실무적 지원 장치가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전역군인의 창업의욕을 제고하기 위해 본 연구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기존 연구와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전역예정 직업군인의 창업의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요인들을 발견하는데 있다. 둘째, 창업의욕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수로써 성취욕구, 자기 유능감,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적 인식을 선정하고 이들 변수들이 창업의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창업지원프로그램이 내적·외적요인과 창업의욕간에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 분석하였다. 이상과 같은 목적으로 수행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역예정 직업군인들에 대한 효율적인 창업지원방안을 수립함에 있어서 실천적인 대안의 기초자료 제공과 전략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창업 및 창업가

창업(創業)에 대한 사전적 의미로는 기업(起業)의 뜻으로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함을 의미한다. Schumpeter는 창업을 새로운 작업 방법으로 기존의 낡은 방법을 파괴하는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로 정의하였다[27]. Dollonger는 창업이란 위험과 불확실한 상황에서 성장과 이윤을 추구하는 혁신적, 경제적 조직체의 탄생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창업의 핵심요소로써 창의성, 혁신, 자원의 수집, 경제적 조직체의 설립, 이윤추구의 기회 등을 제시하였으며 기존 업체의 인구나 양도행위는 창업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14].

창업가 또는 기업가(Entrepreneur)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일궈나가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Morris는 창업가 없이는 창업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중 창업가 자신이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고 보았다[24].

### 2.2 창업지원프로그램

창업지원프로그램이 잠재적 창업자들에게 전문적인 창업역량을 배양시켜줌으로써 창업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게 되어 성공적인 창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창업지원프로그램은 자금 대출뿐만 아니라 창업보육센터 입주 및 창업정보지원 등 창업지원 서비스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기에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경제적 성과가 높아질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

창업을 위한 창업지원프로그램 요소로써 Gartner & Vesper는 잠재적 능력과 특질의 도출, 전문가와의 네트워킹, 특별한 사업 아이디어의 도출 그리고 창업공간 제공 및 창업자금 등을 제시하였다[17]. Vangelis, Stefania & Andreas는 과학 및 기술 전공 학생들의 창업태도와 의욕에 관한 연구에서 창업지원프로그램 구성요소를 창업프로젝트팀, 대학의 보유기술, 자문위원, 클래스메이트의 조언, 정보센터, 연구소, 졸업생 네트워크, 정보교류 공간, 경연대회, 창업자금 그리고 위탁 투자자 등 총 11개로 분류하였다[31]. 유연호는 창업지원프로그램으로 창업강좌, 창업동아리, 창업경진대회, 창업보육센터, 창업정보센터, 창업자문단, 창업연구소, 졸업생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였다[2].

본 연구에서는 전역군인에 대한 창업지원프로그램으로 창업강좌 수강, 창업보육센터 입주, 창업정보 지원실 이용, 창업연구소 활용, 창업자금 이용을 제시하였다.

### 2.3 창업의욕

본 연구는 전역예정 직업군인들의 창업의욕(Entrepreneurial

Intention)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이루어졌다. 창업의욕이란 잠재적 창업가의 미래 어느 시점에 스스로 창업할 가능성에 관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의지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즉, 현재 바로 시작하는 창업여부가 아니라 예비 창업가가 미래에 자발적으로 창업할 가능성에 관한 자신의 평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Bird는 창업은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을 통해 이루어지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된 일련의 과정이며 창업 초기 특성을 결정짓는 핵심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창업의욕이라고 설명했다[9]. Crant는 창업의욕이란 장래에 스스로 창업할 가능성에 관한 자신의 평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12]. 창업의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Brockhaus & Horwitz[10]는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과 Friedman[16]은 기업성과와의 관계에서 찾았다. 이후 연구에서 Chandler & Jansen[11]은 행동특성, Haysshi[20]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체면, Herron & Robinson[19]은 동기부여와 기술력, Redding[25]은 성공으로 얻어지는 신분상승(Prestige)과 사업실패로 잃는 위상 손상(Shame), 장대성[6]은 창업교육 수강여부 그리고 하규수[7]는 사업 부담과 실패 스트레스 등 다양하게 연구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는 추세이다.

## 2.4 창업의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2.4.1 내적요인

선행연구자들은 창업가의 역량을 비롯한 내적요인이 창업여부와 성공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으로 강조하였다. Matsuno 외 2인은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을 창업지향성으로 주장했다[22]. 이지우[5]는 성취욕구, 내적통제소재, 자기 유능감을 창업설명요인으로 설정하였으며, 윤방섭[3]은 경력지향성과 자기 유능감을 창업의욕과 관련지어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DeCarlo & Lyons는 최고경영자가 타 집단의 성향에 비하여 성취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높은 성취욕은 사업운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13]. Brockhaus & Horwitz는 통제소재가 높은 내적인 사람들이 창업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한바 있다[29]. Chandler & Jansen은 창업가의 자기 유능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했다[11].

본 논문에서 내적요인의 변수를 선정함에 있어서 장기간 사회와 격리되어 생활한 직업군인들의 예비 창업가로서 내적요인을 성취욕구, 내적 통제소재, 자기 유능감으로 보았다. 위험감수성도 내적요인 변수로 고려했으나 직업군인은 평소 불확실한 전장 상황을 고려한 근무여건에서 위험감수성은 생활화되어 있어서 창업가의 내적요인

으로 선정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지우[5]의 기존 연구논문에서 추출된 변수인 성취욕구, 내적통제소재, 자기 유능감을 선정하고 동일한 설문지로 전역예정 각 계급별 직업군인 20명을 대상으로 사전 예비설문 실시한 결과, 하면 된다는 적극적인 직업군인들의 조직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성취욕구와 내적통제소재를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의 요인으로 보기 때문에 성취욕구에 내적통제소재를 통합하였다[표 2]. 따라서 예비창업가로서의 직업군인의 내적요인 변수로 심리적요인인 성취욕구와 주어진 상황에서 목표행동을 실행할 수 있는 개인적인 능력인 자기 유능감 두 가지를 선정하였다.

### 2.4.2 외적요인

창업가의 창업의욕에 영향을 주는 외적요인으로 Manning Bieley & Norbuen[21]은 사회적 지원세력. Scherer외 3인[26]은 부모를 비롯한 성공 역할 모델을 중요시하였으며, Gnyawali & Fogel은 창업 및 창업가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창업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18]. 윤방섭은 이를 통합하여 사회적 지원세력, 성공 역할 모델, 사회적 인식을 외적요인의 변수로 설정하여 검증하였다.[3]

본 연구에서 외적요인의 변수선정은 사회적 지원세력과 창업가로서 성공한 직업군인 모델 그리고 사업이나 창업가를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을 선정하였다. 윤방섭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서로 사전에 각 계급별 전역군인 20명을 대상으로 예비 설문조사한 결과 사회적 지원세력과 성공역할 모델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의 요인으로 인식하여 이를 사회적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변수로 통합하였다[표 3]. 따라서 예비창업가로서의 직업군인이 창업시 성공모델로 삼을 수 있고 정서적, 기술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와 창업가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두 가지를 선정하게 되었다.

### 2.4.3 창업지원프로그램의 매개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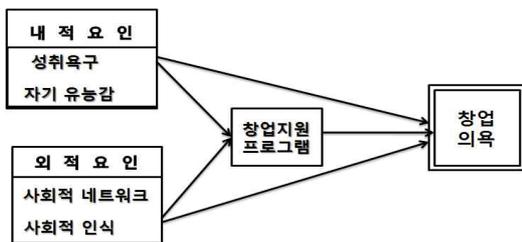
잠재적 창업가의 창업의욕을 북돋우기 위해서는 창업 기회 포착을 위한 창업에 대한 정보와 창업 마인드를 갖출 수 있는 다양한 창업지원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Dumas는 창업가들이 창업지원프로그램 활용을 통해 사회 심리적 기능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립이 강화되었다고 밝혔다[15]. 장대성은 창업교육을 받은 수강생 집단이 창업교육을 받지 않은 미수강 집단보다도 졸업후 창업의욕, 창업관련과목 수강의욕, 창업전공 의욕에서 높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6]. 유연호도 강좌 수강 등 창업지원 교육프로그램이 창업가의 창업의욕으로 보

았다[2]. 따라서 창업지원프로그램이 예비창업가인 직업군인의 내적·외적요인과 창업의욕간에 매개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고 매개변수로 선정하였다.

### 3. 연구방법

####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잠재적 창업가인 전역예정 직업군인들의 내적·외적요인이 창업의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내적·외적 요인과 창업의욕간의 관계에서 창업지원프로그램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규명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가설 1. 내적요인은 창업지원프로그램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1: 성취욕구는 창업지원프로그램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2: 자기 유능감은 창업지원프로그램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외적요인은 창업지원프로그램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1: 사회적 네트워크는 창업지원프로그램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2: 사회적 인식은 창업지원프로그램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창업지원프로그램은 창업의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내적요인은 창업의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4-1: 성취욕구는 창업의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4-2: 자기 유능감은 창업의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외적요인은 창업의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5-1: 사회적 네트워크는 창업의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5-2: 사회적 인식은 창업의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창업지원프로그램은 내적·외적요인과 창업의욕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 6-1: 창업지원프로그램은 성취욕구와 창업의욕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 6-2: 창업지원프로그램은 자기 유능감과 창업의욕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 6-3: 창업지원프로그램은 사회적 네트워크와 창업의욕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 6-4: 창업지원프로그램은 사회적 인식과 창업의욕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 3.2 조사 표본 선정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2010년 9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20일 동안 전역예정 직업군인 20명을 대상으로 예비 설문조사를 거쳤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수정 보완 하였다. 2010년 10월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후 전역 예정인 중사에서 대령까지 600명을 대상으로 2010년 10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전역예정 직업군인으로서 국방부 전직지원 프로그램 및 소자본 창업교육 수강자 3개 기수를 대상으로 설문을 받아서 386부를 회수하였다. 분석에 무의미하거나 성의 없는 설문지를 제외한 361부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조사 표본 대상자의 분포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N=361)

Variable	Group	N(%)
성별	남자	361 (100.0)
	여자	0 (0.0)
최종 학력	고등학교	53 (42.4)
	전문대	55 (15.2)
	대학	66 (18.3)
	대학원	85 (23.5)
소속군	육군	216 (59.8)
	해군	71 (19.7)
	공군	66 (18.3)
	해병대	6 (1.7)
임관 출신	사관학교	25 (6.9)
	ROTC	17 (4.7)
	2·3사관학교	74 (20.5)
	학사장교	10 (2.8)
	하교대	127 (35.2)
기타	99 (27.4)	

복무 기간	10년 이상- 15년 이하	27 (7.5)
	15년 1개월 - 20년 이하	10 (2.8)
	20년 1개월 - 25년 이하	43 (11.9)
	25년 1개월 - 30년 이하	28 (7.8)
	30년 1개월 이상	244 (67.6)
	평균 (표준편차)	29년 9개월 (6.855)
최종 계급	중사	18 (5.0)
	상사	16 (4.4)
	원사	118 (32.7)
	준위/중위	72 (20.0)
	대위	12 (3.3)
	소령	35 (9.7)
	중령	68 (18.8)
	대령	17 (4.7)

###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 3.3.1 독립변수

내적요인은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요인으로 정의하였다. 내적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성취욕구, 자기 유능감의 2가지 문항으로 구분하였으며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내적요인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조작적 정의는 Manning & Norbuen[21]의 문항을 참고하였으며, 이지우[5], 윤방섭[3]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사용하였다.

외적요인은 환경적 요인을 달리 정의하였다. 이러한 외적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적 인식 등 2가지 문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외적요인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조작적 정의는 Sparrowe, Linden, & Kraimer[29]의 측정문항을 참고하였으며, 윤방섭[3]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사용하였다.

#### 3.3.2 종속변수

창업의욕은 잠재적 창업가의 실질적인 창업이 아니라 미래에 자발적으로 창업할 가능성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한 조작적 정의로 Crant[12]의 측정 문항과 이지우[5], 윤방섭[3], 하규수[7]의 연구에서 측정된 문항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 목적에 적합하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 3.3.3 매개변수

창업지원프로그램은 매개변수로서 잠재적 창업가에게 동기부여 그리고 창업의지를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 정의 할 수 있으며, 총 5가지 (창업강좌 수강, 창업보육센터 입주, 창업정보 지원실 이용, 창업연구소 활용, 창업자금 이용)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한 조작적 정의로서 Smilor[28]의 측정문항과 유연호[2]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본 연구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 3.4 통계분석 기법

본 연구에서 이용한 통계분석기법은 자료특성과 분석 목적에 따라 빈도분석(Analysis of Frequency),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신뢰도 검증(Reliability Test), 다중회귀 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다중 공선성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VIF 등 검증을 실시하였다.

## 4. 실증분석결과

### 4.1 측정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측정항목간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을 위해 측정항목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방법은 주성분 분석방법, 베리맥스(varimax) 방식으로 요인을 회전하였으며, 요인의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고유치(eigenvalue)가 1.0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추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같은 요인을 구성하는 항목들 간의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평가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로 신뢰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취욕구, 자기 유능감,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적 인식, 창업지원프로그램, 창업의욕이 각각 .893, .725, .894, .693, .946, .947로 모두 0.6 이상 양호하게 나타남으로써 각 측정 변수들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 4.1.1 내적요인 분석

표 2는 내적요인과 관련한 요인분석 실시 결과이다. 아이겐 값(eigenvalue)이 1 이상인 요인이 2개로 나타났으며, 요인 1은 성취욕구, 요인 2는 자기 유능감으로 명명하였다. 각 측정변수가 요인을 설명할 수 있는 분산설명 비율은 각각 49.83%, 23.52%로 나타났다.

[표 2] 내적요인 분석 결과

문항	요인	Component	
		1	2
나는 무엇을 하든 늘 남보다 잘하고 싶어 한다.	.777	.123	
나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일이 맡겨지더라도 그것을 꼭 해내고야 말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	.819	.291	
나는 어떤 일이건 보다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싶어 한다.	.780	.352	
나는 비록 어려운 문제라도 그것을 꼭 해결하길 원한다.	.807	.328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나 자신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다.	.748	.211	

나는 내게 맡겨진 일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경험, 기술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187	.943
나는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499	.618
고유값(eigenvalue)	3.488	1.647
분산설명비율	49.83	23.52
전체변량	49.83	73.36

#### 4.1.2 외적요인 분석

외적요인 분석 결과, 아이겐 값(eigenvalue)이 표 3과 같이 1 이상인 요인이 2개로 나타났으며, 요인 1은 사회적 네트워크, 요인 2는 사회적 인식으로 명명하였다. 이들 요인들의 분산설명 비율은 각각 43.01%와 20.01%로 나타났다.

[표 3] 외적요인 분석 결과

문항	Component	
	1	2
나는 창업과 관련해 조언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0.817	0.069
나는 사업과 관련하여 고민을 털어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0.851	0.06
나는 사업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의지할 만한 사람이 있다.	0.828	0.127
나는 사업을 시작하면 가족의 지원이 있을 것이다.	0.551	0.097
나는 주변에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잘 알고 있다.	0.781	0.27
내가 창업을 한다면 잘 아는 사람 중에 모델로 삼을 만한 사람이 있다.	0.823	0.211
나의 가까운 사람 중에 창업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다.	0.744	0.175
창업(사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한다.	0.235	0.739
사업가는 사회에서 긍정적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0.15	0.812
사업가들은 자기 일에 자부심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0.043	0.782
고유값(eigenvalue)	4.301	2
분산설명비율	43.01	20.01
전체변량	43.01	63.02

## 4.2 연구가설 검증

### 4.2.1 내적·외적요인과 창업지원프로그램과 관계 분석

내적·외적요인과 창업지원프로그램과의 관계분석인 가설 1,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서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표 4와 같이 사회적 인식( $\beta=.198, p<0.001$ )만이 창업지원프로그램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내적·외적요인과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회귀분석 결과

구분	창업지원프로그램
	B(β)
Constant	13.368***
성취욕구	.189(.135)
자기 유능감	-.031(-.010)
사회적 네트워크	.362(.078)
사회적 인식	.936(.198***)
F	6.654***
R <sup>2</sup>	.073
ΔR <sup>2</sup>	.062

주) \* $p<0.1$ , \*\* $p<0.05$ , \*\*\* $p<0.01$

### 4.2.2 창업지원프로그램과 창업의욕의 관계

매개변수인 창업지원프로그램이 창업의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표 5와 같이 창업지원프로그램( $\beta=.530, p<0.001$ )은 창업의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창업지원프로그램, 창업의욕간의 회귀분석결과

구분	창업의욕
	B(β)
Constant	4.534***
창업지원프로그램	.556(.530***)
F	139.99***
R <sup>2</sup>	.281
Adj. R <sup>2</sup>	.279

주) \* $p<0.1$ , \*\* $p<0.05$ , \*\*\* $p<0.01$

### 4.2.3 매개효과 검증

창업지원프로그램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 & Kenny가 제안한 3단계 매개회귀분석에 따르면 첫 번째 단계는 매개변수와 독립변수를 회귀 분석하여 그 결과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와 유의한 관계를 가지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셋째,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쳐야 한

다. 세부적으로 매개변수가 통제되었을 때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효과가 유의하지 않으면 독립변수가 오직 매개변수를 통해서만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완전매개효과(perfect mediating effect)를 갖게 된다[8]. Van Dyne, Graham & Dienesch에 의하면 세 번째 단계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에 독립변수의 효과가 두 번째 단계에서의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효과보다 작게 되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직접적인 영향과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모두 미치는 것이므로 부분매개효과(partial mediating effect)를 갖게 된다[30].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관계간의 창업지원프로그램의 매개효과에서 창업의욕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결과를 표 6과 같다.

[표 6] 매개회귀 분석 결과

구분	모형 1	모형 2
	B(β)	B(β)
Constant	12.11***	5.10**
성취욕구	-0.001(-0.001)	-0.10(-0.068)
자기 유능감	0.254(0.078)	0.271(0.083)
사회적 네트워크	1.132(0.231***)	0.942(0.192***)
사회적 인식	0.920(0.186***)	0.429(0.087*)
창업지원 프로그램		0.525(0.501***)
F	10.162***	34.736***
R <sup>2</sup>	.107	.339
ΔR <sup>2</sup>	.097	.330

주) \*p<0.1, \*\*p<0.05, \*\*\*p<0.01

모형 1은 가설 4, 5를 검증한 결과로써 그 결과 다중회귀식 모형의 적합도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10.162, p<0.001) 성취욕구가 창업의욕(β=.0001, p>.005), 자기유능감이 창업의욕(β=0.078, p>.005)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1과 4-2는 기각되었다. 사회적 네트워크가 창업의욕((β=0.231, p<0.01), 사회적 지원이 창업의욕(β=0.186, p<.001)에 정적인 영향이 나타나 가설 5-1과 5-2는 채택되었다. 모형 2는 가설 6을 검증한 결과로써 성취욕구와 자기 유능감, 사회적 네트워크는 Baron & Kenny[8]가 제안한 3단계 매개 회귀분석의 기본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각되었다. 사회적 인식은 1단계에서 창업지원프로그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β=.198, p<0.001), 2단계에서 사회적 인식은 창업의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β=.186, p<0.001)), 3 단계에서 사회적인식과 함께 투입된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유의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β=.501, p<0.001), 2 단계에서 창업의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던 사회적 인식

이 3단계에서는 창업의욕에 유의미한 수준에서 회귀계수 값이 감소되었기 때문에((β=.087, p<0.05) 사회적 인식과 창업 의욕간에 창업지원프로그램은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6-4는 부분 채택되었다.

## 5. 결론 및 제언

### 5.1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장기복무 후 전역예정 직업군인들의 창업의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창업지원프로그램에 관한 요구도와 정책적 함의를 구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연구에서 제시된 실증분석 결과와 의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취욕구, 자기 유능감은 예측과 달리 창업의욕에 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적 네트워크와 사회적 인식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직업군인이 수행하는 업무 특성은 전쟁을 수행하는 방법이나 기술이 주안 사항이라서 창업이나 비즈니스 분야는 전혀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성취욕구나 자기 유능감은 창업의욕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직업상의 특성으로 추론된다. 그러나 사회적 네트워크나 사회적 인식이 창업의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창업을 할 경우 사회경험 부족을 보완해줄 정서적,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배경을 중요한 요인으로써 고려함을 의미하며 평소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반영한 결과로 사료된다. 둘째, 창업지원프로그램이 창업의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과 일치하였다. 창업지원프로그램이 창업의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의미는 실질적인 창업지원프로그램 요구도가 높다는 의미이다. 셋째, 창업지원프로그램이 성취욕구 및 자기 유능감과 창업의욕간의 관계에서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직업군인들이 계급사회라는 특성 속에서 오직 진급을 위해 노력하다보니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전역 후 재취업을 우선시하는 군내 풍토와 창업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해 창업에 대한 자신감의 결여라고 추론할 수 있다. 넷째, 사회적 인식과 창업의욕의 관계에서 창업지원프로그램의 매개효과는 부분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창업에 대한 동기부여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실무적 차원의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급시기가 경과된 전역예정 직

업군인들을 위한 전직지원프로그램을 조기에 가동하여 창업 및 취업을 위한 사회적 교육을 강화해야한다. 둘째, 전역군인들은 사회와의 장기간 단절 및 사회경험 부족으로 창업에 대한 두려움이 높다. 이러한 결과는 우선 취업을 선호하게 되지만 취업이 되지 않으면 창업을 하게 되어 준비 없이 창업을 하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중소기업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실직자나 청년 및 시니어 창업가 육성프로그램 등 각종 제도적, 정책적 지원 제도를 적극 연계시켜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성공한 군인출신 창업가들과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성공 역할 모델이나 멘토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주어야 한다.

## 5.2 연구의 한계와 정책적 제언

본 연구는 장기복무 후 전역하는 현역 직업군인들의 창업의욕에 관한 최초의 연구논문이라서 여러 가지 한계점이 존재하는 바 이에 따른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응답표본을 2010년도 전직 기본교육에 참여한 장기복무 후 전역예정 직업군인으로 한정하여 특정시기(2010.10.11~12.13)에 조사하였다. 그러나 다각적인 측면에서 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자 뿐만 아니라 2~3년 후의 전역예정자와 전역 후 1~2년 차의 전역군인들 까지 포함시킨다면 좀 더 심도 깊은 연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전역 직업군인들의 저조한 취업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창업도 일자리 창출의 일환이라는 포괄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셋째, 국방부 취업지원 센터 명칭을 국방부 전역군인 지원센터로 변경하여 창업과 취업을 모두 지원해야 한다. 넷째, 전역군인의 사회진출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인 전직(轉職)훈련원의 설립을 심도 깊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국방부, “취업지원 업무자료집”, 국방취업지원센터, 2009.
- [2] 유연호, “창업의지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경력지향성과 사회문화적요인 그리고 창업지원프로그램 참여의사를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3] 윤방섭, “창업의지의 결정요인”: 개인 특성 및 환경요인, 산학경영 연구 17(2), 2004.
- [4] 이윤성, “제대군인의 국가적 활용방안 연구”, 국방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pp.1-2, 2009.
- [5] 이지우, “개인특성과 창업의지 사이의 관계”, 중소기업학회, 22(1), 2000.
- [6] 장대성, “경영 및 공학 계열 대학생들의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에 관한연구” 산업연구 12권 pp. 63-82, 2000.
- [7] 하규수, “기업가의 사업실패 비용과 사업의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8] Baron, G. & Kenny, D. A., “The moderate-mediator variables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pp. 1173-1182, 1986.
- [9] Bird, B., "Implementing entrepreneurial ideas: The case for intentio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3. pp. 442-454, 1988.
- [10] Brockhaus, R. H. & Horwits, P. S. "The psychology of the entrepreneur." In Sexton, D. L. & Smilor, R.W.(eds.), "The Art and Science of Entrepreneurship", Cambridge,Mass: Ballinger. pp. 25-48, 1986.
- [11] Chandler, G. N. & Jansen, E., "The founder's self-assessed competence and venture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7(3), pp. 223-236. Entrepreneurship", pp. 25-48. Cambridge, Mass: Ballinger. 1992.
- [12] Crant, J. M., "The proactive personality scale as a predictor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4(3) pp. 42-49. 1996.
- [13] DeCarlo, J. F. & Lyons, R. L., "A comparison of selected personal characteristics of minority and non-minority female entrepreneur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17(4), pp.22-29.1979.
- [14] Dollinger, M. J., "Entrepreneurship: Strategies and Resources." 3rd ed. Burr Ringe, II: Austen Press. pp.6-8. 2002.
- [15] Dumas, C., "Evaluating the outcomes of micro-enterprise training for low income women. A case study." Journal of Developmental Entrepreneurship 6(2) pp. 23-35, 2001.
- [16] Friedman, M., "Milton Friedman Responds: A business and society review interview." Business and Society Review 1(1), pp. 5-16. 1972.
- [17] Gartner, W. B & Vesper, K. H. "Experiments in entrepreneurship education: success and failur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9(3), pp. 472-485, 1994.
- [18] Gnyawali. D. R. & Fogel. D. S., "Environments for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Key dimensions and research implica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4). pp. 43-62, 1994.

[19] Herron, L. A. & Robinson, R. B., "A structural model of the effects of entrepreneurial characteristics on venture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8(3), pp. 281-294, 1993.

[20] Hayashi, S., "Culture and Management in Japan.", (trans. by Frank Baldwin), Tokyo: University of Tokyo, 1988.

[21] Manning, K., Biele, S. & Norbun, D.,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4(1), pp. 68-76. 1989.

[22] Matsuno, K., Mentzer, J. T. & Özsoyer, A. "The Effects of Entrepreneurial Proclivity and Market Orientation on Business Performance", *Journal of Marketing* 66, pp.18-32. 2002.

[23] Mazzarol, T., Volery, T., Doss, N. & Thein, V. "Factors influencing small business start-ups."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r & Research*, 5(2), pp.48-63. 1999.

[24] Morris, M. H.,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p. 14, 1998.

[25] Redding, S. G., "Cultural effects in the marketing process in south-east Asia, *Journal of the market research society*." Vol. 24, pp. 98-114. 1993.

[26] Scherer, R. F., Adams, J. S., Carley, S. S. & Wiebe, F. A., "Role model performance effects on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career preference",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3(3). pp. 53-71. 1986.

[27] Schumpeter, J. A.,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An Inquiry into Profit Capital, Credit, Interest and the Business Cycle." Cambridge, M. A: Harvard University Press. 1934.

[28] Smilor, R. W., "Managing the Incubator System: Critical Success Factors to Accelerate New Company Development", *IEEE Transaction on Engineering Management*, Vol. 34(3), pp.146-155. 1987.

[29] Sparrowe, R. T., Linden, R. C. & Kraimer, M. L., "Social networks and the performance of individual and group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4, pp. 316-325, 2001.

[30] Van Dyne, L. Graham, J. W., & Dienesh, R. M.,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construct redefinition, measure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Academy of Management*, 37(4), pp. 765-802. 1994.

[31] Vangelis, S., Stefania, Z. & Andreas, A. L.. "Do entrepreneurship programmes rais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science and engineering students? The effect of learning, inspiration and resourc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Elsevier, vol. 22(4), pp. 566-591, 2007.

김 용 식(Kim, Yong Shik)

[정회원]



- 1977년 3월 : 육군사관학교 (이학사)
- 2002년 2월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학사)
- 1982년 2월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학석사)
- 2007년 2월 :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관심분야>  
벤처경영, 창업경영

하 규 수(Ha, Kyu Soo)

[정회원]



- 1991년 2월 : 한양대학교(법학사)
- 1995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
- 1998년 6월 : Touro 법과전문대학원 (J.D.)
- 1999년 6월 : Georgetown 법과전문대학원 (LL.M.)
- 2009년 2월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경영학박사)
- 2002년 3월 ~현재 :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교수

<관심분야>  
창업, 벤처경영, 전략경영